

3. 쌍점 띄어쓰기의 규정 - 과거와 현재를 보다

앞의 글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와 영어권의 쌍점 띄어쓰기 사례로 보아 양쪽의 관행이 서로 다른 것이 분명하다.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엔 한글 맞춤법을 정하고 언어 규범을 제시하는 '국립국어원'이 있다. 평소 말글살이에서 헛갈리거나 애매한 문제라도 생기면 언제든지 문의할 기관이 있어 다행이다. 보기에 따라선 사소한 문장부호까지 국가 기관에서 규정할까 하는 의문도 있어서 우선 손쉽게 질문을 할 수 있는 포털을 찾았다. 늘 그렇듯 인터넷에 떠도는 답변이라는 게 별로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

아래는 Naver의 질의응답이다. '무려' 국어사전의 <우리말 바로쓰기> 항목인데 일자와 답변 주체가 없어서 언제 누가 답한 건지는 알 수 없다 (더 내려가면 답변 주체가 밝혀진다). 쌍점 찍는 위치가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당당하게 답하고 있다.

질문

쌍점(콜론)을 쓸 때는 앞말과 붙여 쓰는 거라고 들었는데, 예를 들면 '발표자 : 아무개'가 아니라 '발표자: 아무개' 이런 식으로요. 이게 규칙으로 정해진 건가요?

답변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규정에서 쌍점(:)을 찍는 위치를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제시한, 소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을 때에 쓰는 쌍점의 보기를 기준으로 삼아, '발표자: 000'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보기) 일시: 1984 년 10 월 15 일 10 시. 마침표: 문장이 끝남을 나타낸다.

이번엔 Daum의 Tip에 나오는 말이다. 관행적으로 두 가지를 다 쓴다고 해 놓고 나서 아래에 국립국어원에서 확인한 결과를 제시했다. 답하고 나서 보니 잘못을 안 것이다.

검색 결과에 따라 쌍점의 띄어쓰기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더군요.

':(쌍점)'의 띄어쓰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관행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를 많이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문방사우:V똥, 먹, 벼루, 종이

(2) 문방사우V:V똥, 먹, 벼루, 종이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쓰는 것을 선택해 쓰시면 될 듯합니다.

이렇게 둘다 가능하다고 나와있는 곳도 있는데

국립국어원에서 확인한 결과는 위 답변중 1번만 맞다고 하는군요.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립국어원은 가장 '무거운' 쪽이라 웬지 맨 뒤에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아껴 두기로 하고 먼저 위키백과에 들어갔다. 위키백과에서는 쌍점 앞을 붙이고 뒤는 띄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문

사용자 모임

요즘 화제

최근 바뀐

모든 문서 보기

임의 문서로

도움말

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뀐

파일 올리기

특수 문서 목록

고유 링크

문서 정보

위키데이터 항목

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내보내기

책 만들기

PDF로 다운로드

인쇄용 판

다른 프로젝트

위키미디어 공용

다른 언어

العربية

English

Español

Français

Bahasa Indonesia

Português

Русский

اردو

中文

★A 54개 더 보기

링크 편집

문서

토론

읽기

편집

쌍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쌍점(雙點, colon, 콜론)은 문장 부호 ':'의 이름이다.

목차 [숨기기]

- 일반적 사용
 - 서양어권
- 수학에서의 사용
- 컴퓨터에서의 사용
- 부호 위치
- 같이 보기
- 외부 링크

일반적 사용 [편집]

일반적인 사용에 대한 것이다. 아래는 예시이다.

- 시간 표시

11:05 (11시 5분)
- 항목과 내용

국적: 대한민국

성별: 남자
- 화자와 내용

A: 안녕하세요 B 씨.

B: A 씨 오랜만입니다.

서양어권 [편집]

- 목록 앞

There are three fruits: an apple, an orange, and a grape.

→과일 3개가 있다. 그것은 사과, 오렌지, 포도이다.

The agenda are as follows:

→안건은 다음과 같다.
- 문어체에서 인용문장 앞(인용문장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보통은 쉼표를 쓴다.)

He looked at the picture and exclaimed: "What a beautiful picture!"

→그는 그림을 보고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야!" 라고 외쳤다.
- 부제목

수학에서의 사용 [편집]

- 비율 표시

1:3 (1 대 3)

아무나(?) 드나드는 포털의 질의응답보다는 짜임새 있는 항목을 마련한 위키백과에 어쩐지 더 신뢰가 느껴진다.

신뢰 면에서는 훨씬 못하지만 재미삼아 나무위키도 검색했다. 밑줄 친 '난데없이'란 말에 잠시 웃음이 나왔다. 앞에서 많은 사례를 제시했듯 우리가 오랜 세월 쌍점 앞을 띄어 쓴 게 사실이니 이런 녀두리를 할 만하다. 하지만 나무위키라고 우습게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곳곳에 있다. '2015년 맞춤법 개정'을 운운한 걸 보면 누군가가 나름대로 꽤 연구한 흔적이 보인다.

나무위키

최근 변경

최근 토론

특수 기능

라이브

0

역링크

토론

편집

역사

ACL

최근 수정 시각: 2018-11-29 20:42:02

쌍점

1. 문장 부호

雙點. (영어)colon

문장 부호의 일종으로 쌍점 또는 **콜론**(colon)이라고 한다.

시간에서 시와 분, 분과 초의 구분^[1]이나 책에서 장과 절의 구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영화나 소설 등의 제목에서 **부제**를 붙일 때도 사용된다. 의존명사 '대'(對)^[2]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앞과 뒤를 전부 붙여 쓴다.

본래 쌍점의 띄어쓰기는 자유에 맡기게끔 되어 있었다. 국립국어원에서 내놓은 쌍점의 띄어쓰기 관련 답변을 참고하면 이를 알 수 있다. **온라인 가나다 질문 답변 초안**. 이후 2015년에 맞춤법이 개정되면서 쌍점의 띄어쓰기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다. **2015년 5월 9일 수정된 답변**.

추가된 규정에 따르면 문서나 대본에서 화자와 발언, 항목과 내용을 표시할 때는 **앞에는 붙여 쓰고 뒤에는 한 칸 띄어 쓴다**. 콜론을 눈에 더 잘 띄도록 하거나 좀 더 가지런해 보이기 위해 콜론의 앞과 뒤를 모두 띄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 추가된 규정 탓에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용법으로 되었다. **난데없이 많은 사람들이 써오던 맞춤법을 갑작스레 틀린 것으로 지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다면 추가 바란다.**

그나마 가능성 있는 이유가 쌍반점이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을 의식한 것이라는 설인데, 국립국어원의 답변을 듣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다. 참고로 쌍반점은 한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나무위키의 많은 문서들이 '상위 문서 : '처럼 양쪽을 다 띄어서 써져 있으며 방송에서도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최근 들어서 나무위키에서는 이러한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예) 위키: 문서나 대본에서의 화자를 표시할 때에는 앞에는 붙여 쓰고 뒤에는 띄어 씁니다.

이처럼 현행 맞춤법상 앞뒤를 모두 붙여 쓰는 경우는 있으나 앞을 띄어 쓰는 경우는 없다.

여기서 본래의 쌍점 띄어쓰기가 자유로웠다는 근거로 '온라인 가나다 질문 답변 초안'을 제시했는데, 이 링크를 따라가면 위의 Naver의 답변으로 연결된다. 즉, Naver의 답변을 통해 국립국어원에서 답한 것은 '쌍점을 찍는 위치가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2015년을 언급했으므로 최소한 그 이후엔 맞춤법의 일부로서 쌍점의 띄어쓰기가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의 상담사례를 찾아보았다.

묻고 답하기

- 온라인가나다**
- 온라인가나다
[상단 사례 목록](#)
- 국민신문고**
- 국민신문고 민원소리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청백리 지킴이방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 권
- 나도 한바다**
- 공공언어 통합 지원 권
- 110화상(수화)채팅상담**

★ > 묻고 답하기 > 온라인가나다 > **상단 사례 목록**

* 이 자료는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온라인가나다에서 묻고 답한 내용 중에서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5월 29일 고침)

[목록](#) [< 이전](#) [다음 >](#)

쌍점 띄어쓰기

• 등록일	2015. 5. 29.	• 조회	1,401
• 첨부자료			

[질문]
 쌍점(콜론)을 쓸 때는 앞말과 붙여 쓰는 거라고 들었는데, 예를 들면 ‘발표자 : 아무개’가 아니라 ‘발표자: 아무개’ 이런 식으로요, 이게 규칙으로 정해진 건가요?

[답변]
 2015년 개정된 문장 부호 규정에 따르면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쓰는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씁니다.

[목록](#) [< 이전](#) [다음 >](#)

내친 김에 국립국어원에 접속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찾았다.

국립국어원
통합검색
누리집 안내 지도 ENGLISH

알림·소식
사전·국어지식
자료 찾기
국어·한국어 교육
문고 답하기
국어원 소개
전체 보기

사전·국어지식

- 사전**
 - 표준국어대사전
 - 우리말샘
 - 한국수어 사전
 - 한국어기초사전
- 어문 규정 알려두기**
-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 제1부 표준어 사전 원칙
 - 제2부 표준 발음법
- 외래어 표기법**
 - 용례 찾기
 - 규정 보기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용례 찾기
 - 규정 보기
- 다듬은 말(순화어)**

한글 맞춤법

※ 한글 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2017. 3. 28.)] 바로 가기

제1장 총칙	제2장 자모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5장 띄어쓰기	제6장 그 밖의 것	부록
1. 마침표 2. 붙임표 3. 느낌표 4. �clamation표 5. 가운뎃점 6. 쌍점 7. 빗금 8. 큰따옴표 9. 작은따옴표 10. 소괄호 11. 중괄호 12. 대괄호 13. 겹낫표와 겹화살표 14. 홑낫표와 홑화살표 15. 줄표 16. 붙임표 17. 불결표 18. 드러냄표와 밑줄 19. 숨김표 20. 빼임표 21. 줄임표						

6. 쌍점(⋮)

(1)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문방사우: 종이, 붓, 먹, 벼루
일시: 2014년 10월 9일 10시
흔하진 않지만 두 자로 된 성씨도 있다.(예: 남궁, 선우, 황보)
올림표(※): 음의 높이를 반음 올릴 것을 지시한다.

해설

표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열거하여 보이거나 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붙일 때 표제 다음에 쌍점을 쓴다.

- 십장생: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
- 문장 부호: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clamation표 등
- 장소: 광화문 광장 일대
- 협동: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는 것

더 잘 보이도록 빨간 사각형 안의 부분을 키웠다.

6. 쌍점(⋮)

(1)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문방사우: 종이, 붓, 먹, 벼루
일시: 2014년 10월 9일 10시
흔하진 않지만 두 자로 된 성씨도 있다.(예: 남궁, 선우, 황보)
올림표(※): 음의 높이를 반음 올릴 것을 지시한다.

해설

표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열거하여 보이거나 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붙일 때 표제 다음에 쌍점을 쓴다.

- 십장생: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
- 문장 부호: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clamation표 등
- 장소: 광화문 광장 일대
- 협동: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는 것

나머지 부분도 하나씩 보자. 당연한 것 같지만 대화문에서 말하는 사람 뒤의 쌍점은 붙여 쓴다.

(2) 회록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쓴다.

김 과장: 난 못 참겠다.

아들: 아버지, 제발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해설

회록이나 시나리오 등에서 등장인물의 대화 내용을 나타낼 때 등장인물의 이름과 대화 내용 사이에 쌍점을 쓴다.

(5) 로미오: (정원에서) 안녕하! 내 사랑, 기회 있을 때마다 반드시 소식을 전하겠소.

줄리엣: 하지만 우리가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설마 시간 뒤에 쌍점을 띄어 쓰는 경우는 어느 시기였건 없었을 듯싶다.

(3)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

오전 10:20(오전 10시 20분)

두시연해 6:15(두시연해 제6권 제15장)

해설

시·분·초, 권·장·절, 조·항·호 등을 구별할 때 쌍점을 쓴다.

(6) 해 뜨는 시각 7:10:54(7시 10분 54초)

(7) 요한복음 3:16(3장 16절)

(8) 「국어기본법」 14:1(제14조 제1항)

(4) 의존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쓴다.

65:60(65 대 60)

청군:백군(청군 대 백군)

해설

의존 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대’ 대신 쌍점을 쓸 수 있다.

(9) 후반전도 30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0:0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두 개의 예외를 빼고는 거의 쌍점의 앞을 붙이고 뒤를 띄어 쓴다고 명시되어 있다.

[붙임]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다만, (3)과 (4)에서는 쌍점의 앞뒤를 붙여 쓴다.

해설

- 쌍점의 띄어쓰기: 쌍점은 앞말에 붙여 쓰고 뒷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6항의 (3)’과 ‘제6항의 (4)’에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

인터넷이 아닌 '제대로 된' 문서의 존재를 찾았다. 빨간 원 안의 연도가 2014년인 것으로 보아 앞서 언급한 2015년에 개정 고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지 부분이라 한 페이지를 다 차지했다.)

국립국어원 2014-01-44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552-01

문장 부호 해설



국립국어원

친절하게도 모든 문장 부호에 대한 설명과 사례가 실렸다.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콜론(Colon)이 우리말로 '쌍점'이라는 것을 새로이 알게 되었다.

사 례

「문장 부호」 개정 경과

1

「문장 부호」 해설

3

1. 마침표(.)	5
2. 물음표(?)	13
3. 느낌표(!)	17
4. 쉼표(,)	20
5. 가운뎃점(·)	32
6. 쌍점(:)	35
7. 빗금(/)	37
8. 큰따옴표(" ")	40
9. 작은따옴표(' ')	42
10. 소괄호(())	43
11. 중괄호({ })	48
12. 대괄호([])	49
13. 겹낫표(「 」)와 겹화살괄호(< >)	52
14. 홑낫표(「 」)와 홑화살괄호(< >)	53
15. 줄표(—)	54
16. 붙임표(-)	55
17. 물결표(~)	57
18. 드러냄표(*)와 밑줄()	58
19. 숨김표(○, ×)	59
20. 빠짐표(□)	61
21. 줄임표(……)	62

「문장 부호」 전문

65

「문장 부호」 일람표

81

‘쌍점’ 부분을 펴면 인터넷에 제시된 것과 같이 설명과 예시가 있다. 대개의 쌍점에 관한 질의응답에 이 부분이 예시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6

쌍점(:)

(1)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예 문방사우: 종이, 붓, 먹, 벼루

예 일시: 2014년 10월 9일 10시

예 흔하진 않지만 두 자로 된 성씨도 있다.(예: 남궁, 선우, 황보)

예 올림표(#): 음의 높이를 반음 올릴 것을 지시한다.

표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열거하여 보이거나 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붙일 때 표제 다음에 쌍점을 쓴다.

(1) 십장생: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

(2) 문장 부호: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등

(3) 장소: 광화문 광장 일대

(4) 협동: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는 것

(2) 회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쓴다.

예 김 과장: 난 못 참겠다.

예 아들: 아버지, 제발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회곡이나 시나리오 등에서 등장인물의 대화 내용을 나타낼 때 등장인물의 이름과 대화 내용 사이에 쌍점을 쓴다.

(5) 로미오: (정원에서) 안녕히! 내 사랑. 기회 있을 때마다 반드시 소식을 전하겠소.

줄리엣: 하지만 우리가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길다면 길었던 사례 제시와 탐구가 마무리되는 분위기이다. 결국 쌍점의 띄어쓰기 여부는 국립국어원의 규정으로 분명해진다. 행여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생긴다면 이 규정으로 종지부를 찍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는 얘기인데, 인터넷이 없던 시절엔 가끔 학교로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다. 동네 술집에서 사소한 논쟁 끝에 내기가 벌어지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서 진위를 결정한 것이다. 영어에서부터 역사, 정치까지 사람들의 사소한 궁금증은 그때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 답을 인터넷이 대신해서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지혜롭게 잘 찾아야 한다는 문제가 또 남지만...)

사족으로, 2018년 4월 17일자 <한국일보> '우리말 톺아보기'에 이운영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의 기고문을 추가한다. 역시 쌍점은 다른 문장 부호와 함께 '자주 틀리는' 축에 낄다는 게 드러난다.

우리말 톺아보기

자주 틀리는 문장 부호

입력 20180417 17:20

좋아요 0개

🔍

★

가

가

이운영

f

🐦

💡

💬

✉

1%

당신이 찾던 1%의 영감을 위해

'문장 부호'는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여러 부호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한글로 글을 쓴다고 해도, 한글만으로 쓸 수는 없다. 지금 쓴 두 문장에도 이미 문장 부호 3가지가 쓰였다. 작은따옴표('), 마침표(), 실표()이다. 이처럼 간단한 글에도 문장 부호는 있기 마련이고, 문장 부호 하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착한, 누나와 남동생'과 '착한 누나와, 남동생'은 의미가 다르다. 전자는 누나와 남동생이 다 착하다는 뜻이지만, 후자는 누나만 착하다는 것이고 남동생은 어떤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문장 부호는 글쓰기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부록으로 들어가 있다. 문장 부호에서 많이 틀리는 것 중 하나는 연월일 대신 쓰는 마침표의 사용이다. '2018년 4월 18일'이라는 표현은 '2018. 4. 18.'이라고 쓸 수 있는데 흔히 '일' 자리에 쓰는 마침표를 생략하여 '2018. 4. 18'이라고 쓰기도 한다. 이것은 '2018년 4월 18'이 어색한 것처럼, 잘못된 표현이다. 다음으로 쌍점(;) 앞뒤의 띄어쓰기도 많이 틀린다. 공문서에서 흔히 쓰는 '붙임: 건적서 1부'라는 표현에서, 쌍점은 앞말과는 붙이고 뒷말과는 띄어 써야 한다. 그런데 '3:3'과 같은 표현에 끌려서 앞뒤를 다 띄는 경우가 종종 있다. 득점을 나타낼 때에는 앞뒤를 다 띄거나 다 붙여 쓰는 것이 맞지만, 뒷말을 설명하는 문장에서는 앞말과만 붙여 써야 한다. 그 외에 원어를 표시할 때 쓰는 괄호는, 한자어와 외래어를 발음 그대로 한글로 쓰고 원어를 밝힐 때에는 소괄호를 쓰고, 대응하는 한자나 외래어를 밝힐 때에는 대괄호를 써야 한다. 따라서 '단어(單語)', '유엔(U N)'에서는 소괄호가 쓰이지만, '날말(單語)', '국제연합[UN]'에서는 대괄호가 쓰인다.

이운영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주변의 신문 등에서 쌍점의 띄어쓰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4편에서 '쌍점 띄어쓰기의 실제'를 주제로 글이 이어짐)